



AVANTAGE ment

2025.07 ~ 2025.12

FEBRUARY 2026



2025.07 ~ 2025.12

ACHIEVE *ment*
INTERVIEW

FEBRUARY 2026



박아영

프래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

Presidential DIAMOND



인테리어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것이 가장의 본분이라 믿었기에, 개인의 휴식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조차 반납한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전세 사기라는 시련은 제가 평생 일궈온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흔들여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 막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그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존경하는 대표님들과의 단 한 번의 미팅이었습니다.

사실 유니시티라는 이름은 이미 9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게는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며 낯선 기회를 밀어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급급했던 평범한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마주한 유니시티는 달랐습니다. 대표님들과 스폰서님들이 보여주신 진정성 있는 비전은 단순한 사업적 기회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확신에 찬 모습은 어느덧 제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매일 성공을 주문하며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여정이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난관에 부딪혀 흔들릴 때마다 제 곁에는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냉철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멘토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울 때면 말없이 안아주시며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주셨던 대표님들은, 이제 제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제2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가르침 아래, 끈끈한 신뢰와 팀워크로 뭉쳤기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난 후 제 삶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경제적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결실은 막막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시스템과 진심 어린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승급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결실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준 파트너 사장님들과 늘 앞서 길을 닦아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저에게 유니시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닌, 매일 아침을 설레게 하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같은 처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시련을 넘어
희망의 증거가 되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기까지**





오해연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

Presidential DIAMOND



진정한 성취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PDIA 직급 달성은 제게 단순한 성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치열했던 과거, 그리고 마주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 유니시티 사업을 만나기 전, 저는 중국을 무대로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운영하던 경영인이었습니다. 사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인 성과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고, 개인의 시간이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속도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변의 소개로 유니시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기존의 유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 기반의 비즈니스 구조'였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준 '기다림'과 '꾸준함'의 미학 유니시티는 제게 일과 삶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보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정리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유니시티가 이미 갖추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앞서 길을 닦아오신 선배 사업자들의 귀중한 경험을 제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커다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특별한 비결을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화려한 기술이나 비결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꾸준히 발걸음을 옮겼던 그 시간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등불이 되어주신 리더분들과, 어려운 시기에도 저를 믿고 손을 잡아준 소중한 파트너분들의 신뢰와 동행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더 넓어진 내일의 가능성 유니시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넘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저라는 한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설레게 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이 가치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트너분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유니시티는 저에게 삶의 방향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니시티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이어간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오해연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유통 전문가,
시스템으로 완성한
삶의 밸런스**





Presidential DIAMOND



유니시티라는 회사를 만나고, 유니콘그룹과 함께한 지난 약 3년의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직급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정이었고, 함께 믿고 움직여 준 많은 분들의 선택과 시간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약 10년간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며 여러 매장을 관리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고 있는 구조처럼 보였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영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기에 유니시티를 통해 접한 사업 구조는 이전의 경험과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회사와 제품, 그리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장이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과정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기존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이어오며 가장 큰 기준이 되어 준 것은 '사람'과 '방향성'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길을 제시해 준 민영미 대표님과 차무진 대표님은 사업적인 조언을 넘어, 선택의 기준과 태도를 배우게 해준 멘토였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시각화하며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리더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시간이 쌓여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역시 특정한 숫자나 직급에 머무르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택의 기준과 가능성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 믿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제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





권영욱

프레지덴셜
루비
직급 달성

Presidential RUBY



일상으로 증명된 과정

저는 가족의 소개를 통해 유니시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나 기회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니시티를 조금씩 알아가며, 이 브랜드가 오랜 시간 쌓아온 철학과 기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제 생활 방식에 맞지 않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니시티의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하며, 무리한 변화보다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경험하는 과정은 제 생활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단기간의 결과보다는 꾸준함과 균형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제게는 오히려 부담 없이 다가왔고, 건강을 대하는 생각 역시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자연스럽게 유니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나 역시 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건강과 삶의 균형을 함께 이야기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명주

프레지덴셜
사파이어
직급 달성

Presidential **SAPPHIRE**

꿈을 현실로 바꾼 1년의 기적, 자유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도약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가치를 지닌 뜨거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확고한 목표를 품고 매 순간 열정적으로 임한 끝에, 중간 단계인 PD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파이어라는 값진 직급에 도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눈부신 결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룹장님과 비즈니스 스폰서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며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 저의 여정은 고등학교 동창인 이상민 대표님의 제안으로 인천센터로 방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보상 체계를 면밀히 공부하고, PMC 전문화 과정을 이수하며 유니시티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부업으로 내실을 다진 후, 현재는 확신을 가지고 전업으로 전환하여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무진 그룹장님과 이상민 대표님은 저에게 단순한 리더를 넘어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룹의 시스템을 상세히 전수하며 저를 진정한 자유인의 길로 안내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난 후 제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며 하루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달성으로 얻은 특별 성취 보상은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은 물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동안 미뤘었던 소중한 꿈들을 하나씩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유니시티는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일깨워주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성취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제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더 많은 분과 이 자유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윤금애

프리지덴셜
사파이어
직급 달성

19년 통신 사업가, 시스템 비즈니스에서 답을 찾다.

이번 PS 승급은 제 삶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아주 특별하고도 뜻깊은 이정표입니다. 저는 지난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통신 산업의 최전선에서 변화무쌍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달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갈증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뢰하는 리더님을 통해 유니시티를 만나게 되었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비즈니스의 비전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유니시티는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일상 속 균형 잡힌 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며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가치는 제가 유니시티를 선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마주한 리더분들의 일관된 리더십과 실행 중심의 태도는 제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과 매일 반복해온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 쌓여 오늘의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함께 도전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파트너분들의 과정은 제게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유니시티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자 합니다.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차분히 내실을 다지며,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빛나는 그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승급의 기쁨과 책임감을 추진력 삼아, 다이아몬드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이상희

프레지덴셜
사파이어
직급 달성

Presidential **SAPPHIRE**

선택의 끝에서 마주한 변화

잠시 멈춰 있던 제 삶에 '사파이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와 고민 속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을 지나며 그 선택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해 준 팀원들과 스폰서님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잠시 직장 생활을 쉬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스폰서님의 권유로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접한 유니시티의 시스템은 단순한 수입의 개념을 넘어, 노력과 시간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구조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한 만큼 경험이 쌓여간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금씩 제 일상과 태도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이어오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선택의 의미를 차분히 이어가며 제 자리에서 꾸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강미연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어, 함께 동반 성장의 숲을 이룬다



30여 년간 미용인으로서 한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은 제 삶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가 결국 찾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어깨와 무릎에 무리가 오면서 전문가로서의 삶에 위기를 느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커지던 시기에 운명처럼 유니시티를 만났습니다. “해보자”라는 작은 용기 하나로 시작한 이 길이 제 인생 제2막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유니시티의 탁월한 제품력과 유니쌤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용밖에 몰랐던 저를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말이 아닌 삶의 태도로 가치를 증명해 주신 리더분들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준 소중한 멘토였습니다. 이번 PD 달성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결실이 아닙니다. 늘 곁을 지켜준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유니쌤의 견고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한 경제적 수익보다 ‘나를 믿는 힘’과 ‘성장의 기쁨’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제 삶의 방향을 건강하게 다시 그려준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PD라는 자리는 제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발견한 가능성을 더 많은 분과 나누며, 타인의 인생 레벨을 함께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강미연을 만나 내 인생이 달라졌어”라는 그 한마디를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 모두가 함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동반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김다연

최연소 센터장에서 유니시티 리더로, 30대에 설계하는 진정한 자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유니시티를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 학습지 센터장으로서 30세 최연소 승진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앞만 보고 달렸던 열정의 대가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건강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시기에 만난 유니시티는 제게 단순한 제품 이상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방콕 GLUC 컨벤션 참가를 통해 사업의 거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가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믿는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끝까지 놓지 않는 끈기와 우직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유니시티를 만나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며, 더 멋진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지금의 일상은 매일이 축제와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성장을 준비합니다. 2026년에는 멤버십 확장과 성장에 집중하고, 2027년 방콕 컨벤션에서 많은 파트너와 함께 레드카펫 위 주인공이 되는 꿈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30대에 경제적·시간적 자유를 완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유니시티라는 기회의 파도에 몸을 싣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김동일

안전 관리를 넘어 인생을 관리하다, PD 달성으로 증명한 집념의 가치



2025년 PD 달성이라는 결실을 통해 그룹과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성장의 길목마다 성원해 주신 두 분의 대표님과 업라인 스폰서님, 그리고 현장에서 뜨겁게 발맞추은 파트너 사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전 저는 전기기사로서 안전 관리 업무에 매진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피로도가 높았고, 늘 저하된 컨디션 탓에 주말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니시티를 만났고, 꾸준한 제품 섭취를 통해 신체 밸런스를 되찾으며 삶의 활기를 얻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제품력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이는 전업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PD라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장의 끝에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조직 전체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공 루틴을 실천하고, 모든 교육과 랠리의 앞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성공은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면 끝까지 나아가는 신념으로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유니시티는 제게 꿈 없던 직장인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거듭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2026년 PS 도전과 2028년 다이아몬드 입성, 그리고 최종 로얄 크라운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전을 믿고 빠르게 결단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김미감&신인식

시스템으로 일궈낸 진정한 자유, '더 나은 삶'을 향한 위대한 여정



11년 동안 피부숍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로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시간적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만난 유니시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직접 경험한 제품의 가치와 100년이 넘는 역사, PDR 등재로 증명된 과학적 근거는 이 사업이 평생 함께할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사업 초기 올바른 비전과 철학으로 이끌어주신 임성현, 정미아, 현덕해 스폰서님은 저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저의 성취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에서 비롯되었고, 제품의 진정한 마니아가 되어 모든 교육과 미팅에 몰입하며, 사람을 수단인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실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한 파트너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니시티를 통해 저는 경제적 안정을 넘어 삶의 주도권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다섯 분의 파트너를 성공적인 직급으로 안내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다이아몬드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10년 뒤는 분명 오늘과 달라질 것입니다.



김소영&서진영

편견을 넘어 가치를 발견하다, 유니시티와 함께 그리는 긍정의 미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으로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의 권유에도 금전적 피해나 시간 낭비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직접 강의장을 찾아 기업의 비전과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초보 사업자였던 제가 직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신 민영미·차무진 대표님과 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주신 이상민·나승민·한주희 스폰서님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유니시티를 만난 후 제 삶은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통해 건강한 몸과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가족과 함께 꿈꾸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일구어 가는 과정이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도우며, 시간적·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세계 여행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편견에 가려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심을 다해 도전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주&남풍우

마인드파워로 찾은 새로운 사명, 유니시티와 함께 그리는 글로벌 비전



저는 마을 이장으로 10년간 봉사하며 '꽃차마을' 테마의 마을기업을 운영했고, 지역농협 감사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출마와 낙선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시작한 자기계발 공부 중, 유튜브를 통해 '마인드파워'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과 독서모임을 통해 사고의 틀이 바뀌던 중, 마을 주민의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목격하며 유니시티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품의 가치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저는 망설임 없이 전업을 결단했습니다. 리더분들과 시스템을 신뢰하며 활동한 결과, 저 자신은 물론 주변 분들이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는 보람찬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시티는 제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동기부여 강사의 꿈을 유니시티 안에서 실현하며, 많은 분께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매일이 감동의 연속입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 경제적·시간적 자유가 있는 당당한 노후를 유니시티를 통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과 성장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인드파워를 가진 글로벌 리더로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희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공정한 기회, ‘함께’라는 가치로 꿈을 향해 정진하다



처음 친구의 권유로 유니시티를 만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저에게 낯선 두려움과 의구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단계’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수차례 망설였지만,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유니시티만이 가진 정직하고 특별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합리적인 시스템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박아영 대표님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조언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서로 돕는 문화 속에서 저는 정체된 시간을 이겨내고 PD라는 값진 직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는 도전하자”는 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니시티는 과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고, 지금도 고민 중인 분들께 편견을 넘어 기회를 잡으시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PD를 넘어 최단기간 다이아몬드 승급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이 길을 밝혀준 스폰서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김정숙&최목구

30년 교육 전문가에서 건강 전도사로, 유니시티와 함께 여는 인생 2막



귀한 인연과 선택의 복이 만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3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 운영의 한계를 느꼈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체력 저하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친언니의 진심 어린 권유로 유니시티를 만났습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철학과 ‘SAVE 10’ 캠페인, 그리고 품격 있는 리더십 트립은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사업 시작 후 시스템에 안착하며 스폰서님의 방향성에 동참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은 깊어졌습니다. ‘정, 신뢰, 끈기’라는 저만의 무기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의 교육적 통찰 덕분에 비즈니스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속적인 리더 배출을 통해 2026년 PCM 멤버 5분과 함께 성장하고, 2027년 1월 방콕 레드카펫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엠버서더 멤버가 되어 더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니시티는 저에게 ‘Make Life Better’ 그 자체입니다. 인생 2막을 노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이 비즈니스와 함께, 5년 뒤에는 더 많은 사람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돕는 멋진 인생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김종희&최도만

삶의 싹표에서 찾은 새로운 느낌표, PD 달성 그 너머의 진심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은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만큼 몸과 마음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나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때 만난 유니시티는 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골드 디렉터 달성 후 떠났던 첫 여행은 제 인생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진정한 '싹표'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과 소통하며 얻은 경험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건강은 문제가 생긴 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올바른 습관으로 미리 가꾸어야 할 '삶의 기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유니시티 사업은 막연했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PD 직급 달성은 그동안의 선택과 노력이 유효함을 확인시켜 준 소중한 과정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이선영, 신명준, 양미향, 문지현 스폰서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신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꿈은 선명해졌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실한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진심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박건태&황윤정

도전으로 일궈낸 성장의 가치, PD 황윤정의 새로운 여정



이번 PD 직급 달성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함께해주신 대표님들과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세 아이를 키우며 보험 업무를 이어가던 워킹맘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경력 단절 이후 현실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경제적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과 저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인 이영주 스폰서님을 통해 유니시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에 참석했으나, 그곳에서 접한 사업 설명과 보상 체계는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니시티를 통해 제가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 없는 노후를 선물하고, 아이들에게는 환경 때문에 꿈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만 명의 다이아몬드'라는 비전에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도전은 결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매 순간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꿈을 향한 멋진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교빈

버티낸 모든 순간은 성장이 되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확신이 되려 합니다



이번 직급 달성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결실이 아닙니다. 제 부족함을 채워주신 대표님과 묵묵히 곁을 지켜준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니시티를 접한 것은 어머니 이경희 사장의 진심 어린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대한 욕심보다 제품의 우수성에 먼저 마음이 움직였고, 직접 경험하며 쌓인 신뢰는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친절한 시스템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보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순간은 버티면 지나간다****입니다. 여전히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쑥스럽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고비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었을 때 그것이 결국 별일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완성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인내의 과정들이 모여 저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시티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고,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직급에 걸맞은 무게감을 잊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배우고 행동하는 리더로서 희망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송예린

건강에서 시작된 선택, 삶이 되다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과 동시에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통증과 만성 피로로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유니시티 제품을 경험하며 몸의 변화를 느꼈고, 건강이 회복되자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경험은 나눌수록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에 제 경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소개보다 각자의 생활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살피며 근본적인 변화를 돕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유니시티의 가장 큰 힘은 오랜 연구와 데이터 위에서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시스템과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구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너의 수고는 너만 알면 된다”는 말처럼, 타인과의 비교보다 스스로의 성장을 기준 삼아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희망을 함께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신명분

24년 장인의 진심, ‘노동’을 넘어 ‘가치’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24년간 떡집을 운영하며 성실함 하나로 경제적 기반을 닦아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삶의 균형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유니시티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인의 무한한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나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며 꾸준함을 이어가는 법을 배웠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오늘의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비결보다는 ‘지속하는 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파트너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집중하려 합니다. 삶의 여유와 올바른 방향을 선물해 준 유니시티 안에서,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나아가간다면 누구나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원영은&김준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준 유니시티, 이제 다이아몬드 인생을 꿈꾸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던 PD라는 꿈을 현실로 마주하니 기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혼 전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로 근무했던 저는, 결혼 후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며 점차 일상의 활력을 잃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약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택에 신중했던 제게, 옛 동료였던 스폰서님의 권유로 만난 유니시티 제품은 새로운 반전을 선물했습니다.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체험하며 이 사업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보았고, 탄탄한 과학적 기반과 리더의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신 리더분들 덕분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유니시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은 소원했던 주변 관계가 회복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2026년 1월 방콕 글로벌 컨벤션에서 사파이어로 도약하고, 3년 내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하여 진정한 시간적·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나의 성장이 타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가치 있는 여정에, 더 많은 분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여 각자의 소중한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연희

익숙함과 결별, 매일의 질문이 만든 성장의 계보



이번 PD 달성은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켜보면 지금의 결과는 익숙한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쌓아온 시간의 결실입니다. 사업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안정감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변화를 향한 감각은 무뎠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결정 앞에서도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유니시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리한 속도보다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유니시티의 환경은 제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리더분들과 함께 고민해 준 파트너분들의 동행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성취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배움과 실행을 멈추지 않고 저만의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주

시련을 딛고 파트너와 함께 이뤄낸 결실, PD 이영주의 성장 스토리



첫 번째 파트너와 함께 PD(President's Director) 직급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성취는 혼자만의 아낀, 소중한 동료와 발맞춰 걸은 결과이기에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 저는 오랜 시간 경력 단절을 겪으며 경제적 자립과 직업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으나 마음처럼 성과가 나지 않았고, 실적 압박으로 인한 퇴사 위기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한계의 지점에서 유니시티를 만났고, 강의를 통해 접한 합리적인 보상 구조와 비전에 매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마주한 고비마다 저를 지탱해준 정신적 멘토는 유니씨그룹의 민영미 대표님과 박승숙 대표님이십니다. 두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셨으며,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조언으로 제가 다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훌륭한 리더십을 본받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룹장이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생활 신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는 격언입니다.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여 멈춰 서기보다는 ****더욱더** 그리고 **'한 번만 더**'**라는 마음가짐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유니시티를 통해 얻은 이 단단한 의지는 제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유니시티, 건강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게 유니시티는 단순한 직급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5년간 통신판매 자영업을 운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비만과 체력 저하로 인한 건강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유니시티를 만났고, 이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자, 삶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변화는 저를 사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니시티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긍정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승승의 문화'와 탄탄한 제품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저의 시야를 넓혀주신 멘토와 스폰서님들 덕분에 저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시스템에 100% 참여했습니다. 제품을 통해 느낀 감동을 진실하게 전달하며 꾸준함을 유지한 결과, PD라는 값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니시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막연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꿈꿉니다. 2026년 사파이어, 2030년 다이아몬드 달성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나아가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팀을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확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누구나 유니시티라는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현숙&홍윤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유니시티로 설계하는 두 번째 인생 지도



32년 동안 안경사로 일하며 타인의 밝은 시야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정작 제 건강은 만성적인 피로와 컨디션 저하로 인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18년, 우연히 만난 유니시티는 저와 제 가족의 일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에 참여하며 제가 발견한 것은 '함께하는 가치'였습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 응원하는 문화, 그리고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보람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신과 파트너분들의 신뢰 덕분에 PD라는 소중한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PD 달성은 하나의 목표를 이룬 것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저의 시선은 2027년 글로벌 컨벤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레드카펫 위에 서서 유니시티를 자랑스러운 가족 사업으로 키워내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엠버서더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함께,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활기찬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정하윤

20년 무역 베테랑, 변수 없는 ‘시스템의 지속성’에 안착하다



유니시티는 제게 단순한 사업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준 소중한 환경입니다. 지난 20년간 원단 무역과 유통업에 종사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늘 예기치 못한 변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유니시티를 만났고, 차분히 강의를 들으며 이곳의 시스템이 가진 단단한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과정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닌, 팀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제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리더분들의 신뢰와 기다림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니시티를 통해 삶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룹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원섭

7년 차 개발자, ‘제자리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코드’를 다시 쓰다



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로 7년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직업을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안전할까’라는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 수 있는 일을 찾아 여러 직업을 고민하고 경험하던 중, 친구이자 스폰서로부터 유니시티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휩쓸려 “이 길은 틀린 길”이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돌아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을 준비하며 여전히 불안한 미래 속에 멈춰 서 있던 저와 달리, 시스템 안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친구의 모습은 저에게 거대한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참여한 시스템 데이와 미팅을 통해 비로소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서는 틀렸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단지 성공으로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시는 리더분들의 격려 덕분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PD 달성은 결코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한마음으로 뒀어준 파트너 사장님들과 길을 보여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유니시티 안에서 확고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때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지금의 자신감을 잊지 않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최고 명예 직급에 오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경 구속된 일상을 넘어, 아이의 꿈과 나의 시간을 되찾은 행복한 여정



울산에서 프랜차이즈 제빵기사로 일하던 시절, 제 삶은 온통 밀가루 먼지와 이른 새벽의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에도 급여는 늘 제자리걸음이었고, 정당한 수당조차 기대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아이는 늘 돌봄센터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조차 아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 한 끼 먹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늘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와 아이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해 세심한 케어가 절실했던 시기였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는 저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마주한 박서현 대표님의 삶은 저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인천을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고, 탄탄한 보상 구조와 시스템에 확신을 얻은 뒤 과감하게 거처를 옮기며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PD라는 소중한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이끌어주신 멘토 박서현 대표님과 유니씨의 리더분들 덕분에 이제 저는 더 이상 일에 매몰된 삶이 아닌,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유니시티는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행복' 그 자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며 미래를 설계하고, 저의 목표뿐 아니라 아이의 꿈까지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거적 같은 변화를 더 많은 분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최설화 사람을 남기는 성장, 유니시티와 함께한 여정



이번 직급 달성은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곁에서 믿고 응원해주신 리더 사장님과 함께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순간이었고, 유니시티의 가치와 시스템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온 과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져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유니시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순히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철학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던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유니시티를 접했고, 제품을 경험하며 느낀 긍정적인 변화가 신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갈수록 유니시티는 단순한 유통 구조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니시티와 함께하며 몸의 컨디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일상의 균형과 리듬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건강과 수입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선순환의 팀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유니시티는 건강과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Gold
EXECUTIVE
DIRECTOR

골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직급 달성



김말심



김주희



이정희&박상연



이주예



임주리



최정순



한복례



한순영

박찬우

염경문

박미향

임미숙



**Gold
SENIOR
DIRECTOR**

골드 시니어
디렉터
직급 달성

강기숙	강인자	권경애&이병호	권오성&공혜진	김가영	김금식	김명희	김미숙
김삼란	김선자	김순자	김영순	김영순	김용민	김정금	김정숙
김춘일	김현희	김호란	김홍영	김희림	문서운	박건태&황윤정	박경자
박상임	박찬우	박천희	서미숙	설재철&이여진	성태윤	소명자	손미정
손분자	송순덕	송혜영	신미경	신서운	신홍련	안정연	양설
염춘연	오명균	오수천&김영옥	오정옥&장태식	왕봉영	유정남	유희자	윤송자
윤해진	은혜	이강현	이경일	이경홍	이경화	이명순	이보라
이상선	이영희	이자연	이태진	이해란	이현진	이희진	장수용
장옥	장윤정	장필남	재닝	전연화	정강남	정선호	정숙자
정유나	정윤분	정진아	정하윤	정희수	조민주	조수백	조현화
조혜임	진선미	최광목	최교환	최미자	최순자&김규현	최주현	최향춘
한명선	한이서	홍주현	황길연	황영구			



**Gold
DIRECTOR**

골드 디렉터
직급 달성

CUI MINGHUA	FENG XIAOLI	JIN QIUJUE	JIN YUEYU	QUAN LIANHUA	ZHANG YUFEN	강동순	강명희
강성미	강영선	강인자	강지윤	강진철	고용진	고은빈	고희숙
구복암	구영희	권기영	권영미	권영섭	권오복	권오성&공혜진	권용로
권원순	권은연	권혜순	김가은	김경숙	김경실	김경화	김광범
김규연	김금식	김기권	김기영	김나경	김나현	김남옥	김덕순
김도진	김두리	김란	김란희	김명숙	김명화	김명화	김명희
김문화	김미숙	김미애	김미애	김미영	김미옥	김미환	김민규
김민숙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병민	김병익	김보라	김부건
김삼란	김상현	김서희	김석남	김선옥	김선호	김성미	김성애
김숙희	김순휘	김승효	김애희	김여정	김연숙	김연자	김연진
김연화	김영권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이병진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훈	김영희	김오순	김옥희	김왜진	김용복	김우형&김정희	김원주
김윤아	김은영&송석봉	김은지	김은화	김응길	김인숙	김점순	김정자
김정화	김정화	김정희	김종은	김주연&김범석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현	김창영	김창완	김재연	김철호	김춘복&권오영	김태경	김태선
김태현	김한울	김해수	김해순	김해순	김해옥	김향란	김향옥
김현실	김형주	김혜경	김홍성	김효정	나상구&위해정	남상열	남순자
남춘복	남해연	노기철	노유진	노혜경	도영니	류모희	류용금
류잉	류창희	마미옥	마은영	맹현정	명갑조	명형찬	문순애
문영	문임춘	문정란	민백천	박광석	박교빈	박귀숙	박규련
박근영	박명숙	박미경	박보경	박세운&박경열	박순미	박승희	박시연
박유미	박유자	박유정	박은지	박은희	박정순	박정현	박진우
박해연	박화자	박희선	박희선	박희정	방정애	방현희	배덕금&조이석
배은혜	백금례	백성기	백수영	백순화	백정옥	변금선	부신현
서명옥	서미숙	서은정	서자경	서자룡&김영란	서정해	성수경	소양호
손미영	손연천	손현수	송성열	송이남	송지연	송하엽	송한석
송혜영	신경숙	신려화	신민환	신서운	신예슬	신태호	신향아
신혜영	심연순	안선화	안소라	안인숙	안창기	안해연	안희복
양설	양외순	엄경자	엄상미	엄소현	엄영이	엄정희	여금정

여아남	염수자	오명심	오미선	오서원	오선녀	오성심	오수미
오은빈	오한주	오희진	왕주진	왕강웅	우영미	우영선&이인환	우유진
원귀임	원식	위지우	유경선	유미나	유성근	유시연	유영미
유정훈	유중현	유창식&김정희	유현수	윤미연	윤서우	윤서희	윤영공
윤은화	윤채영	윤해진	이강춘	이경숙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희	이계화	이광자	이국용	이금주	이기동	이난영	이동현
이문옥	이미경	이미령	이미분	이미선	이미지	이병순	이보영
이복례	이상은	이새벽	이선아	이선희	이성애	이성용	이수경
이수정	이순옥	이순자	이순자	이승혜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예민	이옥순	이용녀	이용란	이우진	이원숙	이윤진	이은경
이은비	이은성	이은주	이일용	이장송	이재홍	이정민	이정선
이정숙	이정은	이종현	이종화	이주미	이준희	이종호	이지웅
이진선	이진옥	이창훈	이채원	이춘용	이춘자	이춘화	이태현
이하나	이하령	이해란	이향실	이현정	이현주	이혜영	이혜진
이홍화	이훈	이희정	임순금	임영호	임정민	임종균	임춘
임형준&김지희	장경권&공은선	장금결	장기성	장기호	장성태	장옥	장이
장인순	장정숙	장정순	전미화	전혜성	전희권	정금섭	정령매
정문진	정민희	정성숙	정세빈	정순덕	정연숙	정영옥	정영희
정용진	정월화	정윤정	정재희	정지숙	정진관	정진미	정진아
정찬옥	정춘애	정현경	정현백&박경순	조건함	조경철	조단단	조돈미
조미경	조미순	조성숙	조성숙	조아라	조유리	조은순	조재선&김영미
조현균	조희선	지순미	지예원	지혜원	짱평위	채영자	최경선
최금순	최기명	최명환	최미근	최미선	최미찬	최서희	최선옥
최선희	최성희	최순자&김규현	최영란	최은정	최정숙	최진혁	최향
최향춘	최희숙	태복금	하금호	하명옥	하은정	한경하	한명숙&이수영
한은경	한은경&김남중	한재혁	한정아	한정애	허다영	허유정	허은숙
허종순	허지연	허해빈	현영희	현진임	홍다영	홍명순	홍미숙
홍민주	홍성화	홍순일	홍순태	홍은희	홍정숙	홍주현	홍춘화
황교연	황금자	황미향	황재영	황정희	황춘섭	황해광	황혜림
강미례	김순애	김승환	박현식	설철순	우옥란	유일근	이계수
이미향	이순진	이영란	정영이	정점희	추가희		

강동훈	강명숙	고금연	고요한	고유진	고홍순	구선희	권경옥
권영신	권원희	권재희	김경자	김미애	김민영	김사례	김서영
김성연	김성자	김세리	김수연	김순애	김애희	김여정	김연자
김영두	김영은	김영찬	김윤아	김은경	김은수	김은실	김은영
김임겸	김정숙	김정아	김정완	김지양	김혜진	김호순	김희자
남기옥	남복엽	노영환	노재록	마은영	문맹숙	문수자	문희경
박경숙	박서연	박선경	박성수	박순용	박영미	박영호	박은화
박정원	박정현	박희정	배정희	백경자	백찬숙	백현민	서문수
서순옥	서은주	손서희	손승희	송순영	신선이	신연순	신훈
안상돌	안지혜	안현진	안혜영	엄상길	엄성단	오상우	오혜숙



**Gold
EXECUTIVE
MANAGER**

골드
이그제큐티브
매니저
직급 달성



**Gold
SENIOR
MANAGER**

골드 시니어
매니저
직급 달성

원귀임	유미형	유선화	유성목	유영미	유충열	윤숙자	윤종철
이경희	이경희	이백일	이숙자	이순진	이승빈	이승영	이승혜
이승희	이은경	이의선	이주경	이준희	이항실	이현준	이형모
임춘	임홍순	장영일	장인순	전영천	전준일	정도현	정동빈
정명숙	정소원	정원재	정은혜	정춘영	정태영	조경규	조덕순
조미경	조미자	조성권	조아라	조희대	지경수	지호선	진미숙
채련	천미령	천민지	최서희	최송금	최영란	최영미	최은희
최종수	최진혁	최창숙	최현주	최환웅	편지수	하복임	한만희
한은경&김남중	한춘길	햇토리 미즈에	홍순일	황순미	황지석	강인자	김경모
김경순&명정길	김민호	김은아	김철미	김태희	박민영	박한승	부미열
서현복	선병준&박명숙	손주현	송다연	여정은	위영미	유별님	윤기원
이양순	이월주	이은희	이채안	전경화	정언희	하숙자	허익준

YAN SONGHE	ZHANG YUFEN	강경림	강경신	강달래	강영희	강미덕	강미례
강미선	강미숙	강민구	강병수	강삼례	강서현	강성욱	강순임
강윤남	강은영	강정화	강초미	강한별	고건우	고금연	고동명
고미애	고아현	고은림	고은선	고정열	고희단	고희숙	공귀순
구명원	구문숙	구보라	구연수	구한울	구희정	권덕자	권도연
권소영	권영진	권오성&공혜진	권윤지	권재림	권점숙	기세준	길순자
길하나	김가령	김경모	김경민	김경선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명정길
김경옥	김경하	김경해	김교복	김규찬	김기희	김덕희	김동원
김동임	김매화	김명숙	김명옥	김명준	김미경	김미라	김미성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민석	김민성
김민옥	김민우	김민우	김민지	김민호	김병택	김보람	김보민
김복순	김복순	김봉학	김부규	김분남	김상희	김새봄	김서영
김선영	김선임	김성규	김성동	김성민	김성웅	김성제	김성호
김송백	김수용	김수현	김순녀	김순덕	김순애	김승환	김시은
김애희	김여정	김연숙	김연애	김연옥	김연옥	김연주	김영례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선	김영숙	김영숙	김영은	김영임
김영홍	김예원	김옥희	김용만	김우정	김우형	김옥진	김원옥
김유숙	김윤정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은희	김이남	김인숙
김점숙	김정미	김정삼	김정언	김정희	김정희	김종권	김주섭
김주희	김지선	김지연	김채령	김채연	김청자	김춘지	김치옥
김태은	김태효	김태희	김하은	김학민	김항실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형호	김혜근	김혜림	김혜심	김혜연	김혜정	김호준
김홍희	김호숙	김희경	김희영	나인숙	나정자	나혜정	남기옥
남인호	남정민	남춘연	노경순	노순의	노연희	노영은	노영희
노이슬	노재록	노혜심	류모희	류미화	류순화	류이현	류임걸
마동영	모채원	문수현	문정란	문정희	문학봉	문흥기	민서영
박경애	박규린	박금옥	박금주	박남기	박도운	박말숙	박명숙
박미영	박민영	박민정	박상옥	박서진	박서희	박선유	박성관
박성심	박성윤	박성희	박순미	박승희	박영숙	박영신	박영자

박영주	박으뜸	박은혜	박은희	박정규	박정은	박정해	박종희
박주은	박준혁	박진주	박찬우	박찬이	박창희	박천수	박철호
박한승	박현미	박효숙	박희정	방기덕	방점애	방정옥	배덕금
배미정	배영옥	배원님	배은혜	배정희	배지원	배현정	배현화
배홍강	백명자	백산	백선화	백순화	백연숙	백월선	백점숙
백향미	변경자	변순희	변현숙	부미열	사리어	서대영	서덕민
서미선	서민정	서부건	서수경	서양배	서은희	서진영	서혜화
선현승&강수경	설용운	성순모	성유석	성주안	성호정	성화선	손명희
손서희	손예나	손잡순	손정춘	손종영	손주현	손혜영	송계숙
송다연	송선영	송선희	송순임	송윤경	송윤선	송지영	송지은
신국현	신나영	신명희	신복순	신승희	신연순	신연실	신윤희
신주희	신지훈	신태호	신향희	신현미	심문숙	심용규	심은지
심현미	안상현	안선녀	안소현	안영봉	안인순	안정원	안정화
안태일	안현숙	안효준	양원미	양은행	양정미	양지원	양하성
양한별	엄은섭	여정은	여정희	오금자	오미자	오서진	오수아
오수자	오유나	오은경	오재환	오지연	오지영	오한진	오혜숙
오흥해	왕수연	왕인화	왕지혜	우선아	우유진	우윤구	우정희
원귀임	원순임	유건재	유명자	유별님	유상옥	유성근	유세연
유수경	유수임	유승주	유양심	유은례	유해화	유현수	유혜정
윤기원	윤다솜	윤미옥	윤선미	윤성민	윤성환	윤여림	윤정길
윤종규	윤종철	윤훈주	은원경	이갑순	이건우	이경록	이경미
이광수	이교영	이금주	이기현	이니영	이남경	이남순	이도아
이동민	이막례	이명국	이명옥	이명자	이미경	이미애	이미애
이미연	이미용	이미자	이미자	이미자	이미화	이병순	이보성
이봉필	이상미	이상준	이상진	이상희	이선옥	이선우	이성노
이성자	이성주	이수경	이수림	이수진	이순옥	이순주&이용대	이순화
이순희	이승준	이승호	이승화	이양순	이연림	이영란	이영숙
이영옥	이예민	이용엽	이월주	이유순	이윤미	이윤진	이은경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진	이은하	이은현
이은희	이인재	이재숙	이점숙	이정민	이정숙	이정순	이정순
이정울	이정임	이정호	이종현	이주아	이중곤	이지영	이지은
이진영	이진화	이진희	이창우	이채안	이채원	이채윤	이춘옥
이하나	이하영	이학민	이한규	이향자	이현순	이형미	이혜원
이혜진	이화숙	이효숙	이효정	이훈	임선화	임소희	임영미
임원채	임용	임은정	임재홍	임지원	임천복	임한경	장명희&윤대현
장미순	장성희	장세총	장수남	장순애	장연호	장윤애	장은화
장재영	장정순	장지현	장창식	장현덕	장현정	장혜인	전경미
전경민	전경화	전복순	전상철	전천자	전춘학	정경아	정경희
정남숙	정명숙	정모금	정몽건	정미숙	정미용	정보나	정복성
정봉채	정서영	정서영	정선영	정성숙	정성재	정성호	정소라
정숙자	정언희	정연자	정영숙	정영숙	정영이	정옥영	정유진
정은화	정재옥	정재원	정재혁	정점희	정정순	정태영	정한택
정현실	정현자	정현주	정혜리	정혜순	정호진	정희경	정희철

조경민	조광숙	조명숙	조문순	조미자	조성권	조성우	조성훈
조소명	조수림	조수정	조순자	조영형	조윤정	조은영	조은영
조재택	조준예	조진국	조진숙	조창수	조태호	조한임	조현숙
조현화	조형원	조홍연	주민정	주순엽	주일영	주홍매	지수연
지점옥	진봉윤	진선미	진순임	진영애	차영옥	창영배	채금여
천문기	최가희	최근희	최명순	최명희	최미경	최미찬	최민정
최봉금	최봉연	최상선	최석규	최선희	최성률	최성희	최성희
최소연	최연례	최영란	최영미	최영선	최영임	최영희	최우진
최유리	최은서	최정림	최정숙	최정순	최정이	최주희	최진영
최진학	최철호	최하영	최향희	취차이전	탁정아	하은란	하은주
하지민	한경란	한고연&김지우	한미경	한선화	한성란	한순금	한영희
한옥미	한은경&김남중	한주연	한춘길	한필구	한현식	한혜리	한혜영
한혜원	한호성&이영희	함영은	함영주	허순희	현지연	현진임	홍미영
홍순일	홍안나	홍은숙	홍정하	홍창표	홍혜숙	황규철	황순미
황순이	황재영	황정선	황혜림	고민정	고순선	고영애	곽경숙
길효섬	김금조	김기학	김덕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혜	김민정
김성근	김성호	김여진	김영임	김옥자	김유안	김은영	김준원
김철수	김해헌	김현경	김현희	김훤인	나숙희	남승범	노경희
명창호	문해경	문해순	민명숙	박덕례	박무진	박미연	박보영
박서현	박순분	박재경	박혜수	백연경	백영우	변승숙	설애영
손창우	손해심	손화영	송윤숙	송은정	송재만	송지영	신정희
안재신	안현진	양영옥	엄돈규	오종예	원승대	유성자	윤영덕
이경숙	이경애	이상원	이승은	이아신&주해나	이은경	이지훈	이춘걸
이해진	이효순	이희정	전명순	전민주	전성일	전정주	정선
정재은	정진화	정효원	조은초롱	조정경	진소윤	차종임	채순남
최이슬	최효진	하시연	한경옥	한승민	한영분	한정이	한진희
홍금자	황명지						

강명순	강민채	강은영	고광경	고민정	고정열	구보라	권도연
권성현	권영숙	권오상	김가은	김광례	김귀이	김금희	김도경
김명희	김문진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자	김삼순	김성근
김성숙&정막순	김수현	김숙희	김연희	김영만	김영선	김은숙	김은영
김재우	김정늬	김주섭	김진솔	김진숙	김태완	김태은	김태은
김해숙	김효원	남숙자	남정민	노경순	문승룡	민선영	박가현
박경선	박누리	박마리아	박민정	박보영	박서현	박선영	박순애
박영수	박영신	박영자	박영주	박윤하	박현서	방정애	배종혁
봉소영	서진영	손혜숙	송재만	송지영	심문숙	안태자	안현진
양정미	우수남	우연실	유지연	윤다솜	이경록	이경하	이문행
이상준	이선주	이승재	이영옥	이영옥	이영운	이영채	이원숙
이은희	이정균	이정숙	이지영	이지영	이진영	이춘래	이학민
이희숙	이희정	임성규	임은수	임은주	정경희	정선심	정선애
정세비가	정은주	정재은	정재혁	정춘영	정희철	조은영	조화영



**Gold
MANAGER**

골드 매니저
직급 달성

천보애	최경숙	최금남	최명순	최복자	최석림	최우진	최윤주
하복임	한정미	한호성&이영희	함영주	함지애	허지혜	황경숙	공담희
구자환	김동원	김명숙	김소라	김수은	김영복	김은희	김일순
김혜진	김효남	김희순	방계숙	서인자	송빛나	연창민	유정순
이엄	이재진	이정은	이현	임주은	장귀숙	장금영	진준호
전필례	최해순						

낮보다 밤이 더 빛나는 도시, 상해

상하이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시 상해로 떠납니다.
유니시티 인터내셔널과 중국의 미래를 걷는 도시인
상해로의 여정을 함께 하세요.



UNICITY

2026 밀라노 ·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끝까지 침착하게 끝내 가장 강하게

최민정 선수의 레이스를
팀 유니시티가 함께 믿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팀 유니시티 최민정 선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hich appears to read '최민정' (Choi Min-jeong), is located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image.